

직업인의 갑·을 의식과 직무수행태도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 취업자 가운데 11.8%가 일자리에서 본인의 업무를 스스로 평가할 때 갑이라고 응답. 남자(13.7%) 취업자 가운데 갑이라는 비중이 여자 취업자(9.2%)보다 높으나 학력수준별로 비중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음.
- 전체적으로 갑(412.4만원)이 을(285.9만원)보다 69.3% 높은 소득을 얻고 있음. 갑 남자(462.1만원)는 을 여자(232.4만원)보다 2배 가까운 소득을 시현.
- 직무수행태도 가운데 일에서 주도성이 '매우 높음' 응답자(368.6만원)는 '보통' 응답자(244.2만원)보다 124.3만원 더 높은 월평균 소득을 나타냄.
- 이러한 사실은 개인의 갑·을 의식이나 직무수행태도가 소득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줌.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 일자리에서 갑을관계에 대한 의식과 직무수행태도의 정도에 따라 일을 통해 얻는 임금의 격차를 분석

- 직업은 사회에서 요구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받은 보상을 바탕으로 생계를 해결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음.
 - 직무수행의 경제적 보상으로 얻는 직업별 소득은 개별 직업에 관한 핵심적인 정보로서 우리나라 국민이 직업을 선택할 때 첫 번째로 고려하는 요인임.
 - 직업에 따른 소득은 재직자의 학력과 나이는 물론 산업, 직업 유형, 종사하고 있는 기업 규모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됨.
 - 이와 같이 직업과 관련된 의식과 직무수행태도 또한 임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도출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큼.
- 본 분석에서는 직업의식과 관련된 설문 응답과 임금수준과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일자리에서 갑·을 관계에 대한 의식과 직무수행태도 중 업무수행 시 '주도성'과 '주변 상황 파악' 태도와 임금수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함.

| 분석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설문조사(2018)」

-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설문조사(2018)」로 지역과 인구 비례를 고려하여 표본으로 추출된 15세-64세의 우리나라 일반 국민 중 취업자 1,005명 가운데 비임금 근로자 등 임금이 없는 사례(6명)를 제외한 999명임.



〈표 1〉 분석 대상자

2018년		N	비중(%)
전체		999	100.00
성별	여자	414	41.40
	남자	585	58.60
학력수준별	저학력(고졸 이하)	398	39.84
	고학력(전문대졸 이상)	601	60.16

02 일자리에서 '갭'으로 인식하는 정도와 임금수준

본인이 갭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경우, 을보다 높은 임금수준을 나타내고 갭과 을의 성별과 학력수준에 따른 임금수준도 차이를 나타냄.

- 일자리에서 본인의 업무와 위치를 스스로 평가할 때 갭이라고 응답한 사례는 999명 전체 취업자 가운데 118명 (11.8%)으로 나타남.
 - 성별로 남자취업자 가운데 갭이라는 비중(13.7%)이 여자 취업자가 갭이라는 비중(9.2%)보다 더 높아 남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있음을 함의. 그러나 학력수준에 따른 갭·을 비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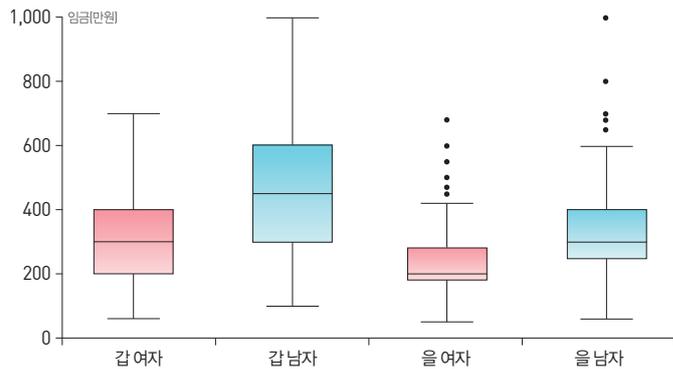
〈표 2〉 성·학력수준별 갭·을 분포

(명, %)

	성별				학력수준				합계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저학력	고학력	저학력	고학력		
갭	38	9.2	80	13.7	45	11.3	73	12.1	118	11.8
을	376	90.8	505	86.3	353	88.7	528	87.9	881	88.2
계	414	100.0	585	100.0	398	100.0	601	100.0	999	100.0

주 |
 성별: $\chi^2(1) = 4.7055(p=0.030)$,
 학력 수준별: $\chi^2(1) = 1.621$
 $(p=0.678)$

- 성별로 갭과 을이라고 응답한 취업자의 임금분포를 보면(〈그림 1〉), 계층별로 중앙값 차이 등 전체적인 임금 분포가 상이함.
 - 임금 중앙값(median)을 중심으로 1사분위수(Q1)와 3사분위수(Q3)를 사각형으로 나타내고 울타리(1.5×(Q3-Q1))를 기준으로 분포를 살펴보면(〈그림 1〉), 갭의 여자와 을의 남자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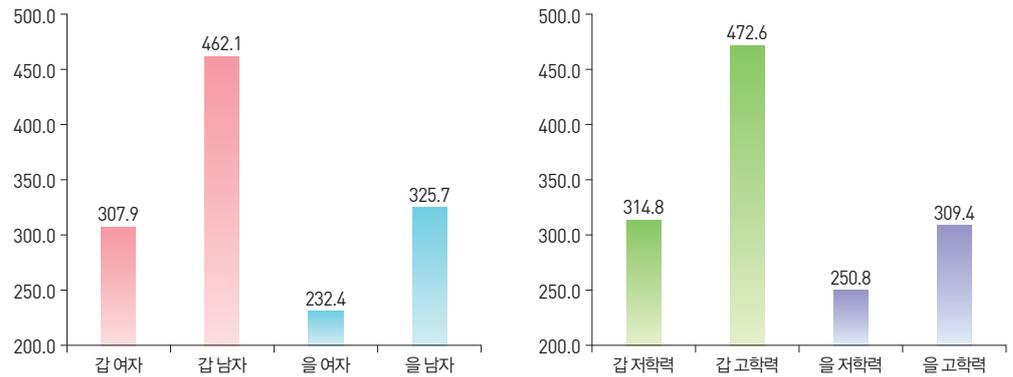


[그림 1] 성별 갭과 을의 임금 분포

- 전체 취업자의 평균 임금은 300.9만원이며 갭(412.4만원)이 을(285.9만원)보다 69.3% 더 높은 평균 소득을 얻고 있음.
 - 성별로 보면 갭에 해당된다고 응답한 남자(462.1만원)가 가장 높으며, 을에 해당한다는 여자(232.4만원)가 가장 낮음. 갭에서 성별 격차가 을에서 격차보다 더 큼. 갭 여자가 얻는 평균 소득은 을 남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학력수준별로 갭에 해당된다고 응답한 고학력자의 임금(472.6만원)이 가장 높으며, 을에 해당한다는 저학력자의 임금(205.8만원)이 가장 낮음. 갭에서 학력별 격차(157.8만원)가 을에서 격차(58.5만원)보다 더 큼. 갭 저학력자와 을 고학력자가 얻는 평균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주 |

- 1) F-검정 결과: 성별 $F_{(3, 999)}=95.58^{***}$, 학력수준별 $F_{(3, 999)}=66.07^{***}$
- 2) t-검정 결과: 성별: 갑 남자 vs 갑 여자 $t=6.50^{***}$, 갑 여자 vs 을 여자 $t=3.68^{***}$, 을 남자 vs 갑 여자 $t=0.88$, 갑 남자 vs 을 여자 $t=15.50^{***}$, 갑 남자 vs 을 남자 $t=9.42^{***}$, 을 남자 vs 을 여자 $t=11.38^{***}$ 학력 수준별: 갑 고학력 vs 갑 저학력 $t=6.67^{***}$, 을 저학력 vs 갑 저학력 $t=-3.24$, 을 고학력 vs 갑 저학력 $t=-0.28$, 을 저학력 vs 갑 고학력 $t=-13.83^{***}$, 을 고학력 vs 갑 고학력 $t=-10.48^{***}$, 을 고학력 vs 을 저학력 $t=6.83^{***}$
- 3) $***=.000$ 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2] 성별 · 학력수준별 갑·을에 따른 임금 차이

- 고용지위별로 비임금근로자의 갑 비율이 높아 임금근로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나, 거주지역별 차이는 거의 없음.
 -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나 자영업자가 비교적 갑의 입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례가 많으나, 임금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이에 비하여 대도시지역과 비 대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는 갑·을 비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

<표 3> 고용 지위와 거주지역별 갑·을 분포

	고용 지위				거주지역				합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대도시		비 대도시			
갑	56	6.5	62	46.6	50	11.3	68	12.2	118	11.8
을	810	93.5	71	53.4	392	88.7	489	87.8	881	88.2
계	866	100.0	133	100.0	442	100.0	557	100.0	999	100.0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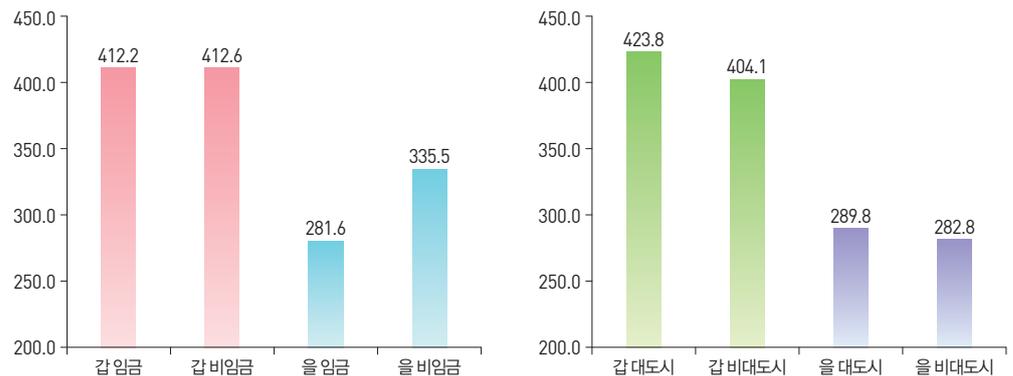
주 |

- 1) 고용지위: $\chi^2(1) = 178.4222$ ($p=0.000$), 거주지역: $\chi^2(1) = 0.1900$ ($p=0.663$)

- 고용 지위별로 갑에 해당되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는 소득이 매우 유사한 수준임. 이에 비하여 을에 해당하는 비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소득수준이 높음.
 - 이에 비하여 거주지역별로 갑과 을의 임금차이는 뚜렷하나 거주지역에 따른 임금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주 |

- 1) F-검정 결과: 고용지위별 $F_{(3, 999)}=36.83^{***}$, 거주지역별 $F_{(3, 999)}=33.16^{***}$
- 2) t-검정 결과: 고용지위별: 갑 비임금근로자 vs 갑 임금근로자 $t=0.01$, 을 임금근로자 vs 갑 임금근로자 $t=-7.30^{***}$, 을 비임금근로자 vs 갑 임금근로자 $t=-3.31$, 을 임금근로자 vs 갑 비임금근로자 $t=7.67^{***}$, 을 비임금근로자 vs 갑 비임금근로자 $t=3.42^{**}$, 을 비임금근로자 vs 을 임금근로자 $t=3.36^{**}$ 거주지역별: 갑 대도시 vs 갑 비 대도시 거주 $t=0.81$, 갑 대도시 vs 을 대도시 거주 $t=6.85^{***}$, 갑 대도시 vs 을 비 대도시 거주 $t=7.29^{***}$, 갑 비 대도시 vs 을 대도시 거주 $t=6.68^{***}$, 갑 비 대도시 vs 을 비 대도시 거주 $t=7.20^{***}$, 을 대도시 vs 을 비 도시 거주 $t=0.80$
- 3) $***=.000$, $**=.001$ 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3] 고용 지위 · 거주지역별 갑·을 인식에 따른 임금 차이

03 개인의 직무수행태도와 소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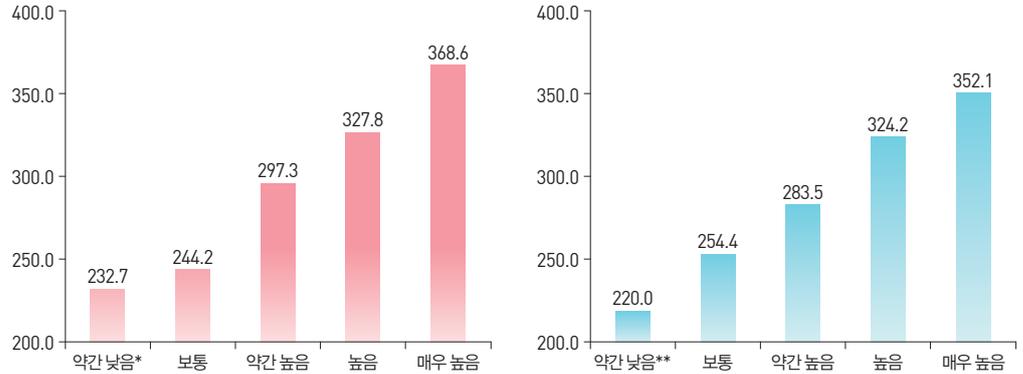
여러 직무수행태도 가운데 주도성이 높거나, 주변 상황 파악을 잘하는 경우에 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아짐.

- 직무수행태도는 직업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보이는 일에 대한 신념, 태도,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업윤리 혹은 고용능력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음.

- 직무수행태도는 신뢰성, 열정, 효율성, 예의 바름, 주도성, 주변 상황파악, 호감, 규정 준수, 친절 등 여러 요소로 측정할 수 있음
- 이 가운데 주도성은 보통을 기준으로 주도성이 높아질수록 소득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함. 주도성과 갑을 관계는 일정한 관련이 있으나, 주도성이 매우 높다는 응답자의 다수는 을이라고 응답함
-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은 보통에 비하여 높음 이상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주

1) F-검정 결과: 주도성 $F_{(4, 994)}=20.14^{***}$, 주변 상황 파악 $F_{(4, 994)}=13.36^{***}$
 2) t-검정 결과: 주도성: 높음 vs 낮음 $t=4.51^{***}$, 매우 높음 vs 낮음 $t=5.51^{***}$, 약간 높음 vs 보통 $t=4.42^{**}$, 높음 vs 보통 $t=6.86^{***}$, 매우 높음 vs 보통 $t=7.03^{***}$, 높음 vs 약간 높음 $t=3.05$, 매우 높음 vs 약간 높음 $t=4.39^{**}$, 매우 높음 vs 높음 $t=2.49$
 주변 상황 파악: 높음 vs 낮음 $t=3.33$, 매우 높음 vs 낮음 $t=3.91^{**}$, 약간 높음 vs 보통 $t=2.10$, 높음 vs 보통 $t=5.10^{***}$, 매우 높음 vs 보통 $t=5.23^{***}$, 높음 vs 약간 높음 $t=4.24^{**}$, 매우 높음 vs 약간 높음 $t=4.31^{**}$, 매우 높음 vs 높음 $t=1.76^{***}$
 3) $^{***}=0.000$, $^{**}=0.01$ 수준에서 유의함.
 4) 주도성: * 약간 낮음은 낮음(10명)을 포함, 주변 상황 파악: ** 약간 낮음에 매우 낮음(1명)과 낮음(1명) 포함.



[그림 4] 주도성과 주변 상황 파악 응답에 따른 임금 차이

04 시사점

- 우리나라에서 갑·을 관계는 업무를 일반적으로 주도하는 특성만이 아니라 보상에서도 격차가 확인되고 있음. 이는 원청과 하청 관계에 있는 기업의 갑을 관계가 직업인 개인 차원에서 통용되고 있음을 시사함. 그러므로 정부는 기업 간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 간 거래에서도 정보나 지식·경험의 부족 등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경제주체를 보호하는 정책 대안이 필요함.
- 을 고학력과 갑 저학력 그리고 을 남자와 갑 여자는 소득수준에서 격차가 확인되지 않으나, 갑 고학력과 을 저학력 그리고 갑 남자와 을 여자는 소득수준에서 2배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을에 해당하는 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직업인이 보이는 여러 직무수행태도 가운데 주도성이 강하고 주변상황을 잘 파악하는 태도는 소득(임금)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됨. 그러므로 기업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직무교육훈련에 신뢰성 등 직무수행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일에 대한 태도로서 주도성과 일과 관련된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갖는 중요성을 환기 시키고 있음.

박 천 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박 화 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